

호주에서 시작한 내 인생의 첫 걸음

계명문화대학교 여행의료관광전공 윤지원

“특출난 것 없는 삶”

태어나서 부모님의 그늘 밑에서 자라는 동안 남들이 하는 것, 해오던 것처럼 정형화된 삶을 살아 왔다. 학창시절엔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고 남들과 동화되기 위해 다양한 것(스포츠, 오락 등)을 해왔었다. 그러다보니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저의 특기는 ~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없었다.

장래의 꿈이 없으면 공부해야지라는 부모님의 말대로 고등학생 1학년때 까지 학업에 치중해 본 결과 준수한 성적을 얻었다. 하지만 준수하다 라는 정도로는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라는 생각과 ‘이 길이 내가 가야할 길이 맞는가? 그리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종착점에서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까?’ 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신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엿매다 보니 어느샌가 학업을 포기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욕도 잃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동안 잠시나마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은 여행 이었다. 친구들과 일정을 계획하고 여행을 하며 진솔한 이야기도 하고 의리도 다지는 동안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되고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도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러다 보니 대학 진학을 할 때도 여행과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난관을 만나게 된다. ‘여행은 잠시 나의 딜레마를 잊게 해주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 해주는 것이 아닌 잠깐의 도피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행을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업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추구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 이었다. 그렇게 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정덩어리 였던 것 같다.....

또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사로 잡혀 있는 동안 가족 중 유일하게 내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8살 차이가 나는 친형에게 고민을 상담하게 되었다.

대화를 통해 형이 나에게 해줬던 조언은 “ 그러한 고민은 현재 10대 20대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는 고민이다. 그리고 니가 아직 배가 불러서 그래.. ” 였다. 맞는 말이다. 23살 인생동안 부모님 곁에서 부족함 없이 의식주를 보장받고 배고픔, 간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으며 용돈벌이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곤 그럴다 할 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었던 형이 나에게도 추천을 해주었다. 해외에서 남의 도움 없이 살면서 독립심을 기르고 다양한 경험을 하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좋아 하는 여행이 아닌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충분한 조사도 해보고 대학 졸업 후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K-MOVE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내 취지에 꼭 맞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고 해외로 나가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안 올 것 같았던 프로그램의 해외 일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필리핀 세부에 위치한 어학원 이었다. 6주 동안 필리핀에서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 했지만 성인이 되고 난 뒤엔 소홀히 했던 문법 공부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었고 외국인들과 대화해보며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내가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 하던 리스닝에 대한 부족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었다. 물론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들과 친목을 다지며 세부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필리핀의 문화를 경험하는 부분도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테지만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간이 바로 필리핀에서의 6주였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스케줄에 매일같이 에세이와 단어시험을 치렀지만 노력한 만큼 성과를 봤던 기간이었다.

필리핀에서의 기간이 물 흐르듯이 지나가고 어느덧 호주로 가야 될 시간이 되어 학원 선생님들과 헤어질땐 얼마나 슬프던지 모르겠더라 짧은 기간동안 정이 많이 들었었다.

호주 케언즈에 도착했을 때 무엇보다도 깜짝 놀랐었던 것은 살인적인 더위였다. 이 더위는 한 평생을 대구에 살았던 나조차도 처음 느껴보는 날씨였다. 아직도 땀별에 샤워하우스를 구하기 위해 낮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며 방을 보러 다니던 때를 잊을 수가 없다. 호주에서 이뤄진 수업은 3달 동안 호주의 Certificate 3 Hospitality 라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업 이었는데 이 때에 나의 영어의 한계를 느꼈었다. 이걸 영어공부가 아닌 영어를 토대로 한 전공수업인 것이다. 생전 처음보는 단어들과 많은 양의 과제들로 고생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Cafe China 라는 실습처에서 일 하면서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는 값진 경험을 했다. 물론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멀어지긴 했지만 중국인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대접받은 휘귀의 맛은 내 기억속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 이다.

“나의 현재와 미래”

학위 취득 후 프로그램이 종료된 현재는 레스토랑에서 쿡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다. 라면만 끓여 먹을 줄 알던 내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을지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겠는가? 물론 주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양파를 손질하는 법부터 손님들에게 제공할 요리를 만드는 일까지 순간들이 처음 겪어보는 순간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 주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친절하니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난지 2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나에게 “너는 꿈을 찾았고 딜레마를 해결 했니?”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대답은 No다. 하지만 보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심을 기르며 인생을 살아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내가 해외에 나오지 않고 한국에서 무턱대고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다면 내 딜레마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나는 충분히 젊고 소중한 경험들을 하고 견문을 넓혀가고 있는 지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꿈을 곧 찾을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꿈 대신 목표는 생겼다. 바로 호주 영주권 취득인데, 호주에 있는 동안 호주의 밤이 있는 삶에 대한 동경이 생겼다. 호주의 생활은 한국과는 다르게 직장에 무게가 치중되어 있지 않고, 가족중심

적인 사회에서 큰 이점을 느꼈고 나도 그 삶에 동화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딜레마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쉽지 않은 길 이란걸 알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묵묵하게 걸어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정상에 도착 할 것이다!

